

데스크 시각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고 노회찬 의원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삼겹살 불판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거대 양당이 분할하던 정치적 토양을 빗대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먹으면 고기가 시커매진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다'라고 일갈했다. 서민의 삶에서 견제 올린 직관적 표현이었기에 널리 회자됐다. 대중이 민주노동당 정치인 노회찬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로 평가 받는다.

혐오와 막말로 가득찬 정치공간

김대중 정권 내내 '소(小)통령'으로 불렸던 박지원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영장실질 심사에 들어가기 전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닦하라'는 시구를 인용했다. 조지훈의 시 '낙화' (落花)로 자신의 처지와 권력무상을 절묘하게 압축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삶과 죽음은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고 유언했다. 전 대통령이자 한 인간으로서 운명과 맞닥뜨려던 그의 삶은 시대의 아픔으로 국민 가슴에 남았다. 단문이 장광설보다 큰 감동을 준다는 문장의 미학도 일깨웠다.

정치판에 혐오와 적개심을 품은 언어가 넘쳐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실종된 정치의 언어

것'이라며 야당과 걸치레 인사조차 거부했다. 내란에 동조하고 옹호한 야당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였으나, '야당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만 선명하게 부각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나가고 너무 나갔다. 정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되받았다. 역대급 망언이자 저주다.

문제의 수첩에는 12·3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노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메모가 담겨 있다. 정치적, 언론인, 노조,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한 내용이다. 나치가 유대인 학살에 동원한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 '수거'는 당연히 '처리' 과정을 암시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은 수거를 '버리거나 내놓은 물건 따위를 거두어 감'이라고 설명한다. '처리'는 정청래 대표가 떠올리는 학살이다.

학계에서는 극단의 언어에 둔감한 우리사회를 예리하게 포착한다. 김왕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분석이다. "혐오 감정은 비하나 모멸감을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유해인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긴장, 그리고 그것들을 소멸하는 적대감을 포함한다. 독일 나치즘이 유대인을 단순히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유해 해충으로 묘사하고 그들을 박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한 후 가스실에서 대량 '정소'를 진행하였듯 혐오는 생명 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상대 진영을 공존과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살벌한 우리 정치문화에 대한 경고다.

강일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으로 돌아

가야 한다. 정치적 차이를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름으로 이해하고 그 차이를 좁히려는 타협과 관용의 정치가 이뤄질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안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1987년 민주화 과정이나 그 이후의 민주적 공고화도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민주주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

협약한 여야 대치 정국에도 한 줄기 희망은 있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 거리는 당중혁 국민회의 합 대표를 기꺼이 만났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수차례 요청에도 만남을 거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말에 대해 "공감가는 게 꽤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용인이다 포용이다.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여야 당의 책무가 다르다고 선을 그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물은 공유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대화하지 못한 것을 평생 아쉬워 했다. 그가 남긴 정치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방법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확고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흥정이나 양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원칙이 정해진 다음에는 모든 것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며,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김대중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김영사)

말로만 민주주의와 정치를 외치는 '가짜' 정치인들이 되새겨야 할 금언이다.

은펜칼럼



박홍근 건축사·공간복지생각 대표

구층암 모과나무 기둥에 기대앉아

선 인조 때 중창되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수가 이어졌다. 1899년에 쓰여진 매천 황현의 '구층암 중수기'도 전해진다. 그러나 그 기록 어디에도 모과나무 기둥 이야기는 없다. 지금의 기둥은 20세기 초, 보수 과정에서 들어섰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왜 하필 모과나무였을까?

모과나무는 단단하고 뒤틀림이 많아 가공이 쉽지 않다. 건축재로 흔히 쓰이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구층암은 불편함을 택했다. 현재도 암자 마당에는 세 그루의 모과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모과나무 기둥은 맞은편 건물에 1개가 있고, 구층암에는 2개가 세워졌다. 불교에서 1은 태극이요, 2는 음양을 상징한다. 그 합인 3은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죽은 모과나무 기둥 3개와 살아있는 나무 3그루, 반복되는 숫자 3은 불교의 윤회사상을 떠올리게도 한다. 동시에 3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완전함, 조화, 안정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의 숫자이기도 하다. 단순한 모과나무 기둥 3개가 아니라 수행자의 사유를 담아낸 건축적 장치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건축은 누구의 뜻이었을까. 기록은 없지만 수행자의 철학과 도편수의 장인 정신이 만난 결과일 것이다. 스님이 "자연 그대로 세워라"라 했을 때 도편수가 그 뜻을 구조적·공간적으로 잘 풀어낸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수행자의 철학과 도편수의 재능, 그들의 신

념과 현실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구층암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불교적 정신 세계를 구축한 '삶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화려한 외형과 즉각적 효용에 치우치곤 한다. 건축도 마찬가지다. 반듯하고 매끈하며, 화려하고 세련된 것만이 좋은 건축이라 믿는다. 그러나 구층암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좋은 건축은 무엇인가? '외형이 아니라 정신이다'라고 묵묵히 말한다.

건축주는 어떤 철학을 품고 있는가? 건축가는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과정에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철학과 장인 정신이 만날 때 좋은 건축이 가능할 것이다.

지리산 자락 작은 암자, 원래 모습 그대로인 모과나무 기둥은 오늘도 묵인 수행을 이어가는 것 같다. 불완전함까지 품어 완전함을 추구한 기둥,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건축의 본질을 찾아가는 실마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크고 화려한 건축이 아니라 더 깊은 정신을 담은 건축이다. 구층암은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구층암 모과나무 기둥에 기대앉아 공간이 주는 잔잔한 매력, 그 공간을 누리는 인간의 행복, 시간 속에서 완성 되어가는 건축의 힘을 온몸으로 느껴본다.

자연환경 훼손은 반드시 재앙을 초래한다

했다. 삶은 풍요롭고 편리해졌으나 이런 인식은 광범위한 자연 환경 파괴로 이어져오고 있다.

지구 보호가 시급이 되어주는 오존층 파괴되어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 성장이 저해되고 폭염과 폭우로 각종 질병과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려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닷물이 담수화하며 식수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영상을 보면 인류가 막다른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 하여 미래가 참으로 끔찍하다.

2018년 스웨덴의 15세 어린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환경운동가로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준 대표적인 인물이다.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연설 참석을 위해 비행기 대신 탄소 배출이 없는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감으로써 친환경적인 삶의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기후변화 대처에 우수한 나라는 주로 북유럽 국가인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독일, 핀란드, 영국, 스웨덴 등인 반면 숲선수범해가 할 강대국들이 역행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과학에 회의적이고 경제를 중시하며 파리협약 등 국제협약을 탈퇴했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석유, 가스 등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

고 있어 미래 세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필자의 팔십 평생에 급년처럼 장기간에 걸쳐 폭염과 폭우가 기승을 부린 때는 없었다.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 광범위한 산림 소실, 아울러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와 이상고온으로 폭우, 홍수, 지진, 폭염이 크게 발생했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증가로 대기 중 열이 축적되어 역대 최고 평균기온이 기록되었다. 특히 한반도와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강한 고기압이 폭염을 일으키고 있다. 폭염으로 수증기가 증가하여 해양 온도 상승이 폭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수천 년 간 24절기에 따라 농사를 지어왔는데 폭염이 계속되어 처서에 김장용 채소도 심을 수 없으니 절기도 무의미하게 된 지 오래다. 이러한 사태와 앞으로 더 일어날 불행한 자연재난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인간이 저지른 인과응보이다. 일시적으로 경제를 우선 시하며 자기 나라의 부강과 안락만을 추구하는 각자도생을 지양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앞으로라도 미래세대가 불행과 파멸을 당하지 않도록 전 세계가 합심하여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 사용함으로써 지구를 보전하는 노력을 줄기차게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社說

서남권 관문 무안공항 집중 육성에 총력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유일의 국제 관문이라는 것을 공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만금공항은 경제성이 없는데도 정치적 논리로 추진됐는데 이번 판결로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요에 비해 지방 공항이 많은 상황에서 건설에 있어 선택과 집중은 물론 공항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미도 있다.

무안공항 입장에서 서남권의 유일한 국제공항이자 거점 공항이란 임지를 다지는 호기를 맞았다고 할 것이다. 무안공항은 정부의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명기됐지만 몇 가지 난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로 공항 이전 TF까지

꾸렸지만 두 달 동안 공식 회의 한 번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무안군이 '공도 전환'을 요구했다가 최근 3대 요구 조건을 내세워 지체된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조정에 나서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전 당사자인 광주시와 무안군의 의지도 있어야 선택과 집중은 물론 공항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미도 있다. 공항 이전 원칙에 찬성한 마당에 민간공항을 먼저 내주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난 해 12월 제주항공 참사로 폐쇄된 무안공항을 재개항 하는 것이다. 재개항을 위해서는 사고 원인 조사를 바탕으로 진상규명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 명명백백하게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안공항 정상화를 꾀하고 광주공항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 광고 집행

정부가 집행하는 광고에서 지역신문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것은 지역언론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다. 윤석열 정부 시가인 지난 3년간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 광고 비중이 해마다 줄어든 것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한 정책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간 신문에 투입된 정부 광고 가운데 지역지 비중은 2022년 46%(1046억원)에서 2024년 41.8%(1014억원)로 줄어든 반면 전국지(중앙지) 비중은 2022년 54.0%(1226억원)에서 2024년 58.2%(1409억원)로 늘었다. 지역별 편차도 심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영남 소재 지역지의 누적 집행액은 1411억원이지만 호남은 3분의 1에 불과한 461억원이었다. 호남은 충청권에 비해서도 200억원 가량 적어 인구나 경제 규모와 비교해도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지 가운데 호남에 집행된 광고 비중은 전체의 12% 수준인데 이는 언론사 수나 종사자 수에서도 역차별이란 지적을 받을만 하다. 한국기자협회 소속 언론사는 광주·전남이 18개이고 전북(12개)까지 포함하면 호남은 30개로 부산(8개), 대구·경북(13개), 경남·울산(13개) 등 34개인 영남권과 비슷하고 대전·충남(8개), 충북(13개) 등 21개인 충청권보다 훨씬 많다.

윤석열 정부와 같은 지역언론 확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지역신문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론장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더구나 지역언론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언론 다양성 보장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역과 매체간 집행 기준을 공개하고 균형있는 집행이 되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길 바란다.

無等鼓

가을에 즐겨 먹는 추어탕(鰍魚湯)은 가난한 농민들이 값싸고 영양가 있는 미꾸라지로 보양식을 만든 것에서 유래했다. 문헌에 따르면 조선 후기 농민들 사이에서 피로 해소와 체력 증진을 돕는 음식으로 널리 사랑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가을 수확 시기에 먹으면 기운을 북돋아 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추어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듯 추어탕은 시골 주막 등지에서 시작되었는데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이 음식을 그리워해 즐기면서 점차 확산했다.

추어탕 밀키트

추어탕을 전라도만 먹는다고 알기 쉽지만 그 이름은 다르며 쇠고기국물을 내고 미꾸라지를 더한 다음 고추장과 고춧가루로 양념해 육개장처럼 얼큰하다. 반면 원주식 추어탕은 여름철 개천에서 물고기를 잡아 끓여 먹던 어죽과 비슷하다. 고추장으로 간하고 수제비를 떠 넣기도 하며 감자와 깻잎, 버섯, 미나리를 넣는다. 경북식 추어탕은 미꾸라지만 아니라 다른 민물 생선도 고루 이용하며 된장으로 간 한다. 생선을 삶아 으갠다는 점은 남원과 같지만 우거지 대신 시래기를 쓰고 들깨를 넣지 않아 투박하면서도 개운한 맛이 특징이다.

'맛의 고장' 강진도 남원 못지않게 추어탕이 유명한 곳이다. 강진의 추어탕은 신선한 미꾸라지에 해풍에 말린 시래기와 각종 양념을 넣어 맛이 깊고 진하다. 보양식으로 짬뽕어탕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밀키트로 판매하고 있다. 다양한 맛을 선보이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지역의 이미지를 좋게 한다는 취지인데 맛도 일품이다. 가을을 맞아 추어탕 한 사발 어땀가 /김대성 전남 사·중부 전북 취재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부 220-0697 (FAX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